

창간 73주년에 부쳐

호남 언론의 종가(宗家) 광주일보가 오는 20일 로 창간 73주년을 맞습니다. 1952년 ‘불편부당(不偏不黨)’ ‘문화창달’ ‘지역개발’이란 3대 사시를 기치로 맞을 올린 광주일보는 지역민과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자이자 증인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일흔 셋 성상(星霜)은 대한민국의 역사만큼 다이내믹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지난하지만 퇴행하지 않는 민주화의 발전 과정을 함께 했고 경제적으로는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후진국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경이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늘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정론 보도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써왔듯 분기점마다 정확하고 명쾌한 분석 보도로 청사(淸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왔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엄혹한 검열속에서도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라는 ‘오월의 시’로 핏빛 폐허에서 피어난 광주의 절규를 전 세계에 알린 것처럼 펜의 힘으로 민주화를 지키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불과 4개월 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기가 또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주시민들에게 35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국민들이 밝힌 ‘빛의 혁명’으로 다시 봄을 맞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

니다. 결정문을 헌법 제1조 제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한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이란 표현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민주공화국과 그 주권자인 국민은 어떤 위협으로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내란사태를 이겨내면서 우리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던진 화두의 배경은 5·18 광주입니다. 광주의 5·18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았습니다.

내란사태는 끝났지만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극우 정치인들의

점에 달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진영 갈등을 해소해 흠어진 국론을 다시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70% 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계에 달한 대통령 중임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헌법 전문에 5·18 광주정신을 넣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쉽지 않지만 받든의 불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하지만 경제 분야 양극화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최우선 해결 과제여야 합니다.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골목상권은 고사 직전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

다. 재정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 남은 골

목량이 많은 기아자의 피해가 현실이 됩니다. 수출 다변화와 동시에 전기차로 차종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모빌리티 도시를 위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만들고 자율주행차 소재와 부품·장비를 특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은 폭발적인 성장성 때문에 국내 도시간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AI 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시는 국가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이 하나 둘 동지를 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AI 중심도시가 되려면 최소 10만장 이상의 GPU를 갖춘 초거대 AI컴퓨팅센터가 필요한데 때마침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 AI에 10조원 투자를 언급해

로젝트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광주·전남 공동 과제에는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지를 무안으로 하지는 데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정작 무안군의 반대로 답보상태입니다. 공항 이전은 1조 5000억원이면 충분한 사업인데도 문제인 정부 시절 지역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 체제에서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문 정부는 13조원이냐 들어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줬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매듭짓도록 해야 합니다. 공항이전이 이뤄져야만 무안공항의 서남권 관문공항도 완성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김구 선생은 일제라는 암울한 시대에도 문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설파했습니다. ‘K 컬처’가 세계를 주도하고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문화의 원형은 콘텐츠이고 이게 힘입니다. 판소리, 남종화, 노벨상을 배출한 문학 등 문화 원형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호남입니다. 광주는 아시아 문화 원형을 탐구하는 아시아문화전당(ACC)이란 창·제작소를 가지고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는 창간 당시부터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라는 사시를 내걸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대표하는 수많은 스타 예술가를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마침 호남예술제가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앞으로도 호남의 문화 원형을 바탕으로 K 컬처를 주도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예술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100년 역사를 향해 무벽무벽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애정 어린 충고와 편담을 늘 기쁨에 새기겠습니다.

정론 보도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갈라치기에 유튜브와 인터넷 매체의 허위 보도가 더해지면서 국론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극우 유튜브들의 법원 급속 사건과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의 중국인 간첩 선거개입 허위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을 극대화 해 국가를 둘로 쪼개 놓았습니다. 다매체 시대라는 작금의 언론 환경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가 제1 원칙으로 지켜온 ‘불편부당한 정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광주일보는 앞으로도 정론 보도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갈등과 양극화 해소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심화돼 온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갈등은 이번 탄핵정국을 거치며 정

든타입은 길지 않습니다. 기업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골목상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상 정책을 포함한 외교 문제도 시급합니다. 특히 통상정책은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를 초래해 국민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광주·전남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는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광주일보의 두 번째 사시와도 부합하는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기아자동차와 광주클로벌모터스(GGM)를 보유한 자동차 도시입니다. 관세전쟁이 현실화 되면 미국 수출

서장이 비치고 있습니다.

전남은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개교를 목전에 뒀다가 의정 갈등 장기화로 내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다시 뛰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어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전남 경제의 두 축인 석유화학과 철강이 위기에 처한 만큼 사업 재편을 통해 새로운 동력으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전남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까지 갖춘 국내 전력생산의 중심지입니다. 미래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솔라시도에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는 프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봄이 늦은 파주 교하에도 마침내 벚꽃이 피고 작약은 물든다. 버드나무 가지마다 연두색이 짙어가는 화창한 봄날에도 나는 마냥 즐겁지는 않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맥이 풀리고 울적하다. 어쨌든 나는 “호두 껍데기 속에 감혀서도 무한한 공간의 왕”(연극 ‘렐랏’의 대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파트는 높아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 배움의 이력이 늘어 쓸데없는 지식은 많아졌지만 정작 어떻게 살지를 모를 때 마음은 갈잡질판 한다. 제제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소란스럽다. 그러면 “나는 비정하지만 조용합니다/ 무심하지만 평온합니다/ 나는 잘나지 못했지만 혼자 잘났습니다.”(김경미 ‘약속이라면’) 같은 시를 읽으며 마음의 소란을 다독이는 것이다.

살아가는 날마다 중대한 결심이 필요하지는 않다. 어제에 이어지는 오늘의 완전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평정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한 덕목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명철해지기로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번동거려도 좋겠다.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나

무심과 평안

달리니까. 세상은 더 풍족해지는 듯하고 데이터의 양은 나날이 쌓인다. 그 양적 팽창이 만드는 지식은 삼시간에 전자구로 퍼진다. 과학, 산업, 기술은 혁신을 좇는 가운데 세상이 퇴보할 거라는 생각은 설 자리가 없다. 그 대신에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부분다.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게 최선이라고 선전하는 세상에서 최선이 아닌 것은 최악 취급을 당한다. 그런데 나는 어쨌든 덜 영악하고 인색을 덜 밝히고 어슬렁어슬렁 거닐며 바보로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합법칙적인 물질세계에 산다고 말한 이는 유명한 과학자다. 그는 인간 본성을 탐구한 연구자이자 사회생물학의 창시자다. 바로 하버드대학 교수를 지낸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이란 책에서 “별들의 탄생에서 사회제도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중략) 물리적 법칙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인간은 이전 세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된 사실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은 과거보다 분자, 원자, 생태계, 세포, 유전자, 염기서열, 별, 우주를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과거와 견줘 생활의 편리는 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과연 인류는 얼마만큼 더 똑똑해지고, 우리 삶은 어디까지 향상될 것인가.

한편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를 떠돌고,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은 지구에 쌓인다. 과학만능주의가 퍼뜨린 미래에 대한 낙관은 더 난망해지고, 과학이 기후재난

같은 인류의 숙제를 해결할 거란 기대는 어그러진다. 삶을 기계적으로 계속하고 항상 예측가능한 것으로 바꾸려는 이성의 기획에서 제 몫을 찾는 과학자와는 대척적인 자리에 있는 게 시인들이다. 과학자들이 물질을 수치화해서 합목적적 논리 속에서 모든 것을 법칙과 원리들로 환원시킨다면 시인들은 자연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영감과 상상으로 존재의 숨은 숭고성과 신비를 꼭 짚어낸다. 오직 시인만이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전조’)라고 쓸 수 있을 테다.

봄날의 하루가 아무 일이 없어도 저무는 동안 나는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펼쳐두고 한 줄의 시를 읽었다. 먼저 흰 목련꽃들이 하르르 떨어지는 봄날 오후는 고요로 들끓고 마음은 심심했다. 무심과 평안 속에서 해가 늙었듯이 질 때 오늘 하루에게 맡기고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한다. 잘 가라, 오늘이여. 봄밤에는 모든 이들에게 더 다정해지기로 한다. 까칠했던 마음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는 착한 생각을 하면서 누그러지는 것이다.

그 참나 일가에 미소가 떠오르는데 그 미소는 오늘도 무사히 지났다고, 내일도 그렇게 지날 거라는 안도와 기대의 표현일 테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만개한 벚꽃을 더 볼 수 있는 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날씨하기를, 바보 이반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어리석은 누군가도 오늘보다 더 자주 웃으며 착해지기를 바란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이 말씀은 원불교 교전 대경경에 있는 말씀이다.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산다. 물이 없어도 물고기는 살 수 없다. 모든 생물은 공기 속에서 산다. 공기가 없어도 모든 생물은 살 수 없다. 우리 사람은 진리 속에서 산다. 진리를 어기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물을 잊기 쉽다. 공기 속에서 사는 모든 생물은 공기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산다.

사람은 진리 속에서 살면서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이따금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가 물 밖에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물을 외면하고 살 수 없다.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다. 우리 사람은 어떠한 황홀한 세계를 동경하다가 진리세계를 이탈해 보려는 모험을 가끔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끝내 실현되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만다. 오히려 많은 고통의 선물을 받게 된다. 진리를 인식하면서 진리적 표준으로 살

진리의 품속에서 살자

기를 원한다.

진리란 형상도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크고 작음도 없다. 선도 악도 없고, 죽고 낡지도 않으며 영생한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안아 주시는 품이 있다. 또는 진리는 없는 듯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면서 슬기로운 빛을 온 누리 구석구석에 비추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토록 영명하신 진리를 속여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이따금 있다.

그러나 주위에는 많은 눈이 있다. 몇 말씀에 암실에서 혼자 간직한 마음도 진리는 번개처럼 빠르게 통하여 알고 있다 했다. 그러기에 열 눈으로 보고 있으며 열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이 무섭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므로 원불교 교전 일원상 진리면에서는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고 했다. 전체 우주도 손바닥 구슬 굴리듯 하시는 이 진리를 속여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다시없어야 하겠다. 진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며 모든 것을 만들고 바꾸고 있게도 없게도 하면서 영생한다.

이러한 진리를 원불교 교전 일원상 진리면에서는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 무시광경에 은연자재한다고 했다. 이 모든 말씀은 진리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무궁하시다는 말이다.

진리를 모르는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그만한 공을 세우고도 이웃과 세상이 몰라 줄까 봐 안달이다. 뒷사람이 몰라주나 좌우에서 몰라주나 밑에서 몰라주나 초조해한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오직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여 갈 뿐이다. 이것은 진리에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보아 알고 계시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덕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털어 주는 상을 베풀기도 하고 복된 상을 틀림없이 주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사람이 잘 잘못간에 한 모든 행동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면 이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배우가 연출한 모든 연기는 그대로 필름과 테이프에 담겨진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대로 재생시켜 준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한 모든 행동은 수 천 수 만리의 안방구석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허공벽면에 그대로 새겨지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해 준 큰 가르침이다. 그러한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도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잘못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진리의 조화와 작용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한때도 멈춤이 없는 거룩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서 이 엄연한 진리의 존재를 솔직히 인정하고 믿어서 진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無等鼓

해의 유명 대학이 한 해의 단어로 ‘뇌섹음(brain rot)’을 선정했다. 뇌의 기능 저하를 다소 자극적인 ‘씩음’으로 표현한 이 단어는 현재 한국의 정치 풍경 속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뇌섹음은 자극적인 콘텐츠

를 과잉소비해 집중력 저하, 문해력 약화 등 지적으로 퇴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파면 등을 겪으면서 뇌섹음 현상은 양 극단을 만들어 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종교와 학계, 정치세력은 뇌섹음을 통해 자금과 투

쟁의 원동력, 지지율 등을 이끌어 냈다. 전광훈 목사 일파는 종교보다는 ‘목사에 대한 맹목적인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뇌섹음 과정에 정치권과 학계 등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한길은 SNS와 길거리에서 껀변을 쏟아냈고 일부 정치인도 유언비어에 맞장구를 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범할 때 종종 등장하는 것은 권위와 위상이 있는 인물의 말과 판단이다. 목사나 교수, 정치인들의 말을 무턱대고 진실과 사실로 믿는 오류를 자주 범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최근 6개월 사이, 수많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 속에서 부정선거를 믿고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뇌섹음을 조장한 정치권과 종교, 학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유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뇌섹음 현상을 통해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여부다. 전광훈 목사 일파는 종교보다는 ‘목사에 대한 맹목적인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를 설명하고 계업을 ‘계몽’이라고 칭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국민의 후원을 부탁했다. 정치인들은 극한의 갈등을 통해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만 뇌섹음 현상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결국 국민이다. 정치 혼란으로 한국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멈춰버린 피해는 국민이 오랜 시간 파멸을 흘리며 감아야 할 부채로 남았다.

/오광록 서울본부 부장 kroh@

Z세대 전화 공포증 해소 위해 소통과 교육 필요

최근 영국의 한 금융회사인 ‘포비스마자르(Forvis Mazars)’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출생) 신입사원들을 위한 ‘전화 받는 법’ 교육을 도입했다. 직장 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대화 기술을 교육하는 것 자체로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차이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콜포비아’, 즉 전화 공포증이다.

기성세대는 전화를 업무의 핵심 의사소통 도구로 여겨왔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신뢰감을 주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 그러나 2030, 특히 Z세대는 성장 환경과 디지털 문화를 통해 완전히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익혔다. 메신저

와 이메일을 선호하며, 대화를 하기 전 충분히 내용을 정리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생각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한다’는 전화의 특징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긴장과 불안을 유발한다.

세대 차이로 인해 생겨난 이 커뮤니케이션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대한 존중이 병행돼야 한다. 콜포비아는 단순히 ‘전화 하나 못 받는 세대’라는 비판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술과 문화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세대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장민화·광주시 서구 송촌중·취업준비생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여 론 매 체 부 220-0661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디 지 털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